

# 「琴譜歌」作者에 대하여

—退溪作이 아니다—

李 東 英\*

- |                  |               |
|------------------|---------------|
| I. 序 言           | (1) 退溪의 詩歌觀   |
| II. 「琴譜歌」의 異本對比  | (2) 退溪作比定의 缺格 |
| III. 退溪作이 아닌 諸問題 | IV. 맺는말       |

## I. 序 言

지금까지 退溪作으로 研究된 歌辭는 모두 7편이다. 필자는 지난 1981년 도 한국어문학회 주최 전국발표 대회에서 「退溪의 歌辭所作說 辨正」을 가지고 그 연구된 7편의 歌辭가 모두 退溪作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두었다.<sup>1)</sup> 이미 「還山別曲」과 「道德歌」에 대하여는 그 전모가 바로 잡아졌으며 여기서는 「譜琴歌」의 異本을 對比시키고 그것이 退溪作이 아닌 根據를 考證해 두고자 한다. 작자와 작품에 대한 是非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琴譜歌」란 어떤 내용의 작품인지 그 본문을 보는 순서를 앞세워야 이해가 좋은 것으로 생각되어 두 본을 對比시켜 제시한다.

## II. 異本의 對比

최초 「금보가」를 退溪의 작품으로 소개한 것은 鄭鈺東 박사가 경북 若木에서 발굴한 料資이다. 이것의 加添本이 李相寶 박사에 의해 韓國歌辭選集에 등재되고 慶北大 徐元燮 교수에 의해 연구되었다. 이 연구는 退溪作으로 강작키 比定코자 退溪年譜를 옮겨 병렬하였을 뿐 文獻과 本文의 考察이 전혀 없었다. 그것은 다음 작품을 對比시켜 놓고 말하고자 한다.

\* 釜山大 師大 副教授

1) 1981년 11월 21일 韓國語文學會 主權인 전국어문학연구 발표대회를 大邱·啓明大學校 東西文化館에서 가졌다. 「退溪의 歌辭所作說 辨正」은 별도로 발표될 것이다.

## 徐元鑿 研究本

玉樓紗窓 花柳中の  
 白馬金鞭 少年들이  
 平生聞見 七絃琴을  
 알고저리 질기논야  
 知音을 못하거던  
 音律을 어이알며  
 博物을 못하거던  
 體法을 어이알리  
 知音과 體法을  
 날다려 못거드면  
 窮天 地理을  
 大綱이나 일으일라  
 太平代 聖帝王이  
 堯舜밖기 쓰었느냐  
 乃微服 遊康衢의  
 擊壤歌도 죠커니와  
 畊歷山 漁雷澤의  
 讓畔의 어더턴고  
 俗理 世晏하니  
 일너설의 업것마논  
 今代 億兆民이  
 戴而王 하즈하니  
 民心을 揣度하야  
 一張琴 덩그실제  
 蒼梧山 碧溪邊의  
 絶로죽은 石上梧桐  
 玉斧로 베쳐너야  
 三尺에 裁斷하니  
 上中下體 한法이  
 天地人 三才로다  
 中虛 外實하야  
 陰陽을 配合하니  
 三陽은 우의잇고  
 二陰은 아리었다  
 背部의 둥글기논  
 이아니 天圓이며  
 腹部의 모느기논

## 柳鐸一本

육누사창 화류중의  
 빅마금편 쇼년드르  
 평성문무 칠현금을  
 알고저리 즐기난ㄹ  
 박물을 못하거던  
 음의를 어이알니  
 지음 체법을  
 날다려 못계드면  
 대기만 니르리르  
 태평대 성세왕이  
 내미복 유궁구의  
 격양ㄹ도 쫓커니와  
 경녜손 어뢰턱의  
 양반이 엇덜턴고  
 승뉴 선화논  
 일너썰디 업저니와  
 억조 충성이  
 원되키 굴다하니  
 민심을 춘탁하스  
 일장금 만그실제  
 창오산 벽계변의  
 절로늘근 석승오동  
 육류로 뷔어너야  
 삼척의 적단하니  
 상하체 글논법은  
 턴지인 삼지로다  
 둥허 외실하야  
 음양을 합하올제  
 이음은 밋헛잇고  
 삼양은 우헛이서  
 비부의 두뎡기논  
 이아니 턴원이며  
 북부의 모느기난  
 이아니 지방인ㄹ  
 상지의 남은거손  
 턴부쪽 서북이오  
 하지의 남은거손

이아니 地方인가  
 上天의 나뉘거선  
 天不足 西北이오  
 下地에 나뉘거선  
 地不滿 東南이라  
 天地을 既法하고  
 人事로 攄일저계  
 大舜은 別標되여  
 上位을 攄領하고  
 八元 八凱는  
 一行으로 압히서서  
 우의서 나눈을  
 次例로 맞들저계  
 扶桑 萬年枝에  
 츄갓치 일킨唐絲  
 一川 南北의  
 배갓치 질겨날오  
 三手의 交合하야  
 五絃을 드리니냐  
 靑絲로 잇홀이여  
 늘리여 발인樣은  
 丹山 碧梧桐에  
 鳳의소리 지시로다  
 三絃은 三德되야  
 十六標로 맞쳐있고  
 二絃은 二相되여  
 무어시로 교와던고  
 九萬里 雲霧의  
 기력의 발이로다  
 瀟湘 班竹枝로  
 즐즐이 풀나더니  
 大絃은 濃濃하여  
 老龍의 우뚝이오  
 小絃은 冷冷하여  
 別鶴의 소리로다  
 宮商 角徵羽는  
 五音이 버려잇고  
 水火 金木土는  
 四時을 맛다있다

지부족 동남이라  
 디순의 법기되여  
 삼위를 총령할제  
 팔원팔괘 일힘으로  
 압히서 나온영을  
 次例로 받들세라  
 부상 만년지의  
 실키먹은 당스실로  
 삼수의 조합하야  
 오현은 드러너니  
 일천 남북의  
 배는맛 질기느라  
 청수로 잇들니어  
 푸리쳐 선진양은  
 턴티손 벽오지의  
 치봉의 소리로다  
 완조를 급지하고  
 급조를 깡장하야  
 쇼상 반죽지로  
 즐즐리 피와너니  
 삼현은 삼덕되야  
 십늑괘를 버려잇고  
 이현은 두상되야  
 무엇을 피와난고  
 구만니 운소간의  
 외기력의 불이로다  
 디현은 농농하야  
 노룡의 소리갓고  
 쇼현은 명명하야  
 청학의 소리갓고  
 궁상각치우는  
 오음을 버려잇고  
 금목수화토는  
 스세를 맛다잇고  
 계일의 상궁하니  
 토이 음성이라  
 춘추 전국시의  
 디동하는 소리로다  
 계이의 상상하니

第一은 象角<sup>호니</sup>  
 木音이 春聲이라  
 東風 百花節의  
 杜鵑의 소리로다  
 第二는 象徵<sup>호니</sup>  
 火音이 夏聲이라  
 南山 松柏枝에  
 孔雀의 소리로다  
 第三은 象商<sup>호니</sup>  
 金音이 秋聲이라  
 西風 白帝聲의  
 의기력의 소리로다  
 第四는 象羽<sup>호니</sup>  
 水音이 冬聲이라  
 北水 長江의  
 여홀우난 소리로다  
 第五는 象宮<sup>호니</sup>  
 土音이 雄聲이라  
 春秋 戰國時에  
 地動<sup>호난</sup> 소리로다  
 源源<sup>호</sup> 正音이야  
 이럿<sup>호</sup> 거니와  
 清雅<sup>호</sup> 憂雲聲은  
 造化를 기리조차  
 玉指 집는<sup>호</sup> 디로  
 樛마다 달라잔다  
 青山의 流水韻은  
 風月의 閒情이오  
 步虛子 尋芳曲은  
 太平의 詩興이라  
 南薰殿 月明夜의  
 손조빛겨 안으시고  
 玉音을 넘히<sup>호</sup> 닐야  
 解吾民 소리할제  
 景星이 나타나고  
 卿雲이 일어날제  
 百工이 相和<sup>호</sup> 야  
 和答<sup>호</sup> 고 이려느니  
 그아니 舜琴이퍼

금이 兪성이르  
 서풍 빅레성의  
 의기력의 소리로다  
 제습의 상각<sup>호</sup> 니  
 목이 兪성이라  
 동풍 니화절의  
 두견의 소리로다  
 제소의 상치<sup>호</sup> 니  
 화이 호성이라  
 남산 소빅제의  
 공작의 소리로다  
 제오의 상우<sup>호</sup> 니  
 슈이 동성이르  
 북구 장강성의  
 여홀우난 소리로다  
 원원 성음이  
 조화로 조초<sup>호</sup> 니  
 옥지로 집는<sup>호</sup> 디로  
 패마다 달나나니  
 남훈전 달말은제  
 손조빛기 안으시고  
 옥음을 넘히<sup>호</sup> 닐야  
 히오민지 노리<sup>호</sup> 니  
 억조 창성들이  
 뉘아니 즐겨<sup>호</sup> 리  
 경성이 늦<sup>호</sup> 호고  
 경운이 니러나  
 빅공이 상화<sup>호</sup> 야  
 다시러 노리로다  
 이아니 순금인<sup>호</sup> 마  
 곡조마다 우격이오  
 류문무 마이현은  
 천디의 시비잇고  
 제결냥 진쳐<sup>호</sup> 소도  
 빅야연락 호여있다  
 니별곡 단탄조의  
 마논님 말뉴<sup>호</sup> 며  
 오거니 마거니  
 일턴<sup>호</sup> 너동이라

이아니 舜琴인가  
 周文武 二加絃도  
 千古에 是非잇고  
 晉處士 漢臥龍도  
 이뜻줄 다아던가  
 未來에 女樂되야  
 淫亂을 일사마셔  
 靑樓 酒肆에  
 갑맞는 物件되여  
 離別曲 長短調로  
 가년님을 挽留호다  
 가거나 오거나  
 一天下 雷同이로다  
 어지다 大聖遺譜을  
 誤傳할줄 잇슬는가

아마도 디성뉴보로  
 오전할 마 두리느니  
 고조를 승상호소

\* 이 필사본은 한글본이다. 문리상 오자로 보이는 어휘가 있거니와 일단 그냥 두기로 한다.

와 같다. 여기서 異本の 對比를 보면 최초 鄭鈺東의 발췌본은 124句였는데 徐교수의 연구본은 130句이다. 徐교수는 李相寶의 「韓國歌辭精選」에 수록본을 연구본으로 하였고 鄭鈺東의 발췌본과 상이한 것은 脚註로써 밝혀 두었다. 그리고 柳鐸一교수의 藏本은 118句이다. 徐교수가 연구 대본으로 한 李相寶의 「歌辭選集本」과 鄭鈺東과의 차이를 보면 다음의 ①「造化를 기리조차」 ②「景星이 나타나고」 ③「卿雲이 일어날제」 ④「靑樓 酒肆에」 ⑤「갑맞는 物件되여」 ⑥「一天下 雷同이로다」 등 6句이고 柳교수의 藏本 보다는 鄭鈺東本이 또한 6句가 더 많다. 그러면 위의 3종을 볼 때 모두 字句의 차적이 있다. 이중에 어느 것도 信本으로 比定하기는 주저 되거니와 柳교수의 藏本이 낫다고 할 수 있다. 流動文學인 歌辭의 그 句數가 늘어남은 轉寫되는 과정에서 탈락보다도 첨가되는 경우가 많은 때문이다. 앞에 異本이 對比됨으로 正誤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 Ⅲ. 退溪作이 아닌 諸問題

위의 「琴譜歌」가 退溪作이 아니라는 것은 작품을 읽어보면 판단이 간다. 그런데도 退溪作으로 研究하매 온통 退溪의 家系와 修學期, 出仕期, 講學期 그리고 爲人에 대하여 年譜와 退溪文集과 朝鮮王朝實錄 등 문헌을 轉

載하고 있다.<sup>2)</sup> 이같은 기록들은 이 작품의 作者研究와 아무 관계도 없는 부분이였다.

그러면 이 「금보가」가 退溪作이 아닌 점은, 첫째는 퇴계의 시가관을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고, 둘째는 「금보가」에서 보이는 語彙의 照明, 셋째는 필사본 「續箕雅」의 원전 문제이고, 그리고 退溪의 學問과 人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작품이 退溪作이 아닌 것을 고증할 수 있다.

### (1) 退溪의 詩歌觀

退溪의 著述이 尅大하고 또한 文學과 관계되는 기록도 적지 않거니와 文學研究者로서는 깊은 연구가 없다가 최근 退溪文學의 연구 論著로서 中國 淡江大學 王 甦교수의 「退溪詩學」과 啓明大學 李源周교수의 「退溪先生の 文學觀」은 천착된 연구였다. 특히 「退溪詩學」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sup>3)</sup>

退溪가 文學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鄭子中의 閑居詩에 화답한 詩에서 「詩不誤人人自誤 興來情適已難禁」(詩가 사람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그릇되기도 한다, 흥이 일고 감정에 알맞으면 이미 詩를 안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즉 「詩不誤人」이라고 말한 것은 詩를 지을 만하다는 뜻이나 「人自誤」는 많이 지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興來情適已難禁」은 詩를 안지을 수도 없음을 말한 것이다. 退溪는 詩를 잘 하였으나 理學研究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일찌기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文學豈可忽哉? 學文所以正心」(문학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文學을 공부하는 까닭은 마음을 바로 잡는데 있다)<sup>4)</sup> 하였다. 한 말로 말하자면 「學文所以正心」이 退溪의 文學觀이다. 退溪는 文學의 중요한 效用의 하나를 「正心」에서 구했음을 알 수 있다.

거기다가 우리 詩歌에 대한 견해를 陶山十二曲 跋文 중에서 翰林別曲이 文人の 입에서 불리워졌지만 그것은 矜豪放蕩하고 褻慢戲押해서 君子의 승

2) 徐元燮 「歌辭文學研究」(1978, 螢雪出版社刊 pp. 197~312 本著 각편에 徐교수는 退溪의 年譜를 봉체로 轉寫해온 곳이 많거니와 적어도 退溪의 生涯라면 衆知되어 있다.

3) 王 甦著 「退溪詩學」(1981년 退溪學研究院刊 李 章佑 譯) 李源周 「退溪先生の 文學觀」(1981년 韓國學論叢 제 8 집, 啓大刊)

4) 退溪先生言行錄 卷 2 pp. 22~23

상할 바가 못된다고 하였고, 李龜六歌가 翰林別曲보다는 낫지마는 그것도 玩世不恭의 뜻이 있고 溫柔敦厚한 實相이 적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 退溪는 詩歌創作에서 ① 금호방탕 ② 설단회압 ③ 완세불공을 배척하였다. 그래서 陶山十二曲으로서 蕩滌鄙吝하고 感發融通케 함은 文學이 지녀야 할 正心의 效用을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詩는 모름지기 規矩와 法度를 강구해야 하며 다시 허심탄회하게 다듬어서 字句를 저울질 하여 음율에 맞음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항목은 필자의 「退溪의 歌辭所作說 辨正」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은 예문을 생략키로 하거니와 退溪集에서 和子中閒居 二十詠 중에 「彈琴」이란 詩를 옮겨 보임으로 하여 「금보가」 연구에 자료가 될지 모르겠다.

彈 琴

先王作樂意尤深  
 天地中和發自心  
 鳳下南薰元盡美  
 鶴來東國別成音  
 平生我未專師學  
 此日君能古譜尋  
 好待明年山月夜  
 無絃琴和有絃琴<sup>5)</sup>

[역] 거문고를 탐

先王이 풍류를 마련하신 그 뜻이 깊은지고  
 天地의 中和之氣 스스로 마음에서 생겨나오는 것  
 봉황새 南薰殿에 들고 옛곡조도 아름답고  
 학이 동쪽 나라에서 와 음률을 다르게 이루었도다  
 내 평생 전문하여 배우지 못했음을 아쉬워 했는데  
 그대는 오늘에 옛 琴譜를 찾아 내었도다  
 명년은 달 밝은 밤 고요한 곳을 찾아서

5) 退溪全書 卷三詩 ① p.109(1978년 成大大東文化研究院刊)  
 先生作樂意尤深：伏羲作琴修身理性反其天真也 神農氏始削桐爲琴羅絲爲絃 以通神明之德 神農氏琴長三尺六寸六分 上有五絃曰 宮商角徵羽文武 增二絃曰小宮小商  
 鶴來東國別成音：新羅眞興王時 有玄鶴琴初麗人以七絃琴 送高句麗人不知鼓之法時國相乎山岳  
 因本樣改其淵兼製百餘曲 奏之有玄鶴來舞各玄鶴琴  
 古譜：案古譜如五曲十二操九引二十一章之類 <退溪文集攷證卷二>

탈 줄 모르는 거문고이지만 한번 뜯어 보겠노라.

위의 彈琴詩는 1560년 文峰 鄭惟一에게 和答한 詩이다. 鄭惟一은 陶山 及門錄에 의하면 그의 字는 子中이고 號는 文峰이요 東萊人인데 安東에 살았다. 嘉靖 癸巳(1533)에 나서 일찌기 退溪門下에 와서 배웠다. 天資가 甚高하고 風儀가 뛰어 났었다. 詞章과 政術이 모두 學問에 근본을 했다. 朝廷에 들어 가서는 강직하고 꺼리김 없이 임금을 인도하고 요직에 있을 때 경연의 자문을 기약했다. 歷史에서 그를 眞學士라고 칭도하였다.<sup>6)</sup> 이 같은 鄭文峰에게 「此日君能古譜尋」이라고 한 것은 退溪門徒로서 琴譜에 대한 조예가 깊었던 분인가 쉽다. 그의 업적은 王朝實錄 여러 곳에 나타나고 「文峰先生文集」이 있다.

## (2) 退溪作比定の 缺格

첫째 이 「금보가」를 발굴 소개한 鄭鈺東에 의하면 慶北 若木面 申弘燮氏가 소장하고 있는 「續箕雅」라는 책에 실려있는 작품인데 續箕雅는 申氏의 高祖父 申意均이 中韓古今의 유명한 詩句와 우리의 歌辭 수 편을 筆寫한 책이라고 하였다. 筆寫者인 申意均은 號가 秋泉이요 憲宗 丁酉生(1837)이다. 著書로는 「左海歷代」(1卷), 「南夏歷代」(2卷), 「待春」(雜文·1卷), 「明師遊覽」(天文·1卷) 「分隨錄」(1卷) 등이 있다고 하였다. 위의 文獻을 가진 筆寫者의 學的 性分으로 보나 退溪의 歌樂에 대한 태도 등으로 미루어 믿을 만하다<sup>7)</sup> 하였다. 대개 이로부터 退溪作으로 比定되어 연구자료가 되었으나 筆者의 조사로는 의문이 있었다. 隣邑에는 그의 聲譽가 알려져 있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상당한 학자로서 筆寫者라면 歌中에 다음과 같은 誤記가 있을가 하는 점이다.

### 申氏本の 誤記

- 1) 音律을 어이알며
- 2) 窮天 地理을

### 校正(李東英)

- 音義를 어이알며  
窮天之理를

6) 陶山及門錄 卷二, 文峰先生이 安東 眞寶倅로 재직한 적이 있었다. 거문고를 좋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금보가」의 작자에 대한 연구자료가 될지 밝혀준다.

7) 語文論叢 第2輯(1964.7 慶北大學校 文理大刊 p. 89)

- |                           |                        |
|---------------------------|------------------------|
| 3) 民心을 揣度 <sup>ㄷ</sup> 하야 | 民心을 忖度 <sup>ㄷ</sup> 하야 |
| 4) 絶로 죽은 石上梧桐             | 絶로 늙은 石上梧桐             |
| 5) 天不足 西北이오               | 天部 <sup>ㄷ</sup> 쪽 西北이오 |
| 6) 地不滿 東南이라               | 地部 <sup>ㄷ</sup> 쪽 東南이라 |
| 7) 三手의 交合 <sup>ㄷ</sup> 하야 | 三手의 組合 <sup>ㄷ</sup> 하야 |
| 8) 丹山 碧梧桐에                | 天台山 벽오동에               |
| 9) 瀟湘 斑竹枝로                | 瀟湘 斑竹枝로                |
| 10) 別鶴의 소리로다              | 靑鶴의 소리로다               |
| 11) 卿雲이 일어나고              | 慶雲이 일어나고               |

와 같다.<sup>8)</sup> 이같은 誤記는 文理로써 바로잡아져야 할 語彙라고 본다. 앞서 鄭鈺東氏의 말처럼 申意均의 業績 成分을 인정한다면 이는 申氏의 手寫本이 아니거나 열람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續箕雅」에 편철된 「合江亭歌」, 「陶山六曲」, 「漁父歌」, 「樂貧歌」, 「大明復雙歌」, 「勸義指路歌」 등 작품과 작자까지도 검토가 없고서는 안 될 것이다. 실로 두려운 것은 天不足 西北이오 / 地不滿 東南이라 등 10餘個의 틀린 어휘를 校正하지 않은 註解本이나 그것을 연구한 결과를 어떻다고 말하라.

둘째, L. Goldmann의 한 작품은 그것이 당대 社會와 유리되어 創作되는 것이 아니라 社會構造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견을 참조할 때<sup>9)</sup> 거기다가 退溪의 詩歌觀을 첨가하면 「琴譜歌」에 사용된 語彙로써 이 작품의 창작년대를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먼저 本歌의 序詞 부분과 結詞 부분을 옮겨 보자.

○ 序詞 부분	○ 結詞 부분
玉樓紗窓 花柳中の	未來에 女樂되야
白馬金鞭 少年들아	淫亂을 일삼다서
平生見聞 七絃琴을	靑樓 酒肆에
알고져리 질기느냐	잡맞는 物件되여
知音을 못 <sup>ㄷ</sup> 거던	離別曲 長短調로

8) 李相寶 박사의 「韓國歌辭選集」에도 위의 틀린 어휘의 文理를 바로 잡지 않았고 낱말주석에도 可否의 말이 없었다.

9) L. Goldmann, Towards a Sociology of the Novel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1975)

音律을 어이말며	가는님을 挽留한다
博物을 못하거든	가거나 오거나
體法을 어이알리	一天下 雷同이로다
知音과 體法을	엇지타 大聖遺譜을
날다려 못거드면	誤傳할줄 잇슬는가
窮天 地理를	
大綱이나 일으리라	

와 같다. 여기서 「玉樓紗窓 花柳中에 / 白鳥金鞭 少年들아」, 「未來에 女樂되야 / 淫亂을 일사마서 / 靑樓 酒肆에 갑밧는 物件되여 / 離別曲 長短調로 가는님을 挽留한다」와 같은 어휘는 退溪時代의 詩歌 어휘로 나타나는 바가 없다. 뿐만아니라 위의 「금보가」를 退溪作이라 한다면 「聖賢의 退溪」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누구의 所作이든 이 작품의 결사 부분의 「未來에 女樂되야 淫亂을 일삼아서」 등 몇 句는 첨가된 句節이라 보인다. 柳鐸一本의 수집처가 大邱라고 한다. 若木과 大邱는 인접한 곳이라 할 수 있다. 3종 중에는 柳本이 原典에 가까운 善本일 수 있다.

물론 원본의 확정이란 어렵다. 특히 流動文學인 歌辭는 많은 필사본이 있으므로 그 원전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문학이다.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원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그것은 연구자들이 믿을 만한 원본에 의거하여 작품이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徐교수는 텍스트의 불실로 말미암아 우스운 헛 수고를 한 것이다.

세계는 退溪의 詩歌觀과 退溪의 學問이다. 위에서 그의 詩歌觀의 요지를 보인 것으로만도 「琴譜歌」는 退溪作이 아닌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데 退溪의 學問은 一言으로 요약하기가 어렵다. 흔히 말하는 退溪의 학문이 朱子學研究에 전심한 것은 사실이나 그의 업적은 理學體系와 敬學의 體系이면서 眞知와 實踐을 구하였다. 退溪가 朱子研究를 시작한 것은 1543년(癸卯) 中宗大王이 書館에 명하여 朱子全書를 印出케 한 43歲 이후의 일이다. 이로부터 退溪의 學的 업적은 그 著述이 尙大하다. 그러면 退溪의 學問과 人間 退溪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門人들이 기록한 말을 인용해 보기로 한다.

1) 月川 趙穆은 退溪言行錄에서 이렇게 적었다.

대저 先生께서는 道義에 대해서는 존경하기를 神明과 같이 하고, 믿기를 書龜와 같이 하고, 쓰기(用)를 菽粟과 같이 하고, 입기(服)를 裘葛와 같이 한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거나 진실로 義를 얻은 것이면 비록 남들이 비웃더라도 염려하지 않는다…… 그 學問의 正大함과 義理의 精深함과 功夫의 至到함과 操守의 堅確함과 潛心 發憤하여 道를 體得하고 德을 成就한 점에 있어서 나의 所見으로는 우리 東方에 오직 그 한분 뿐이다.<sup>10)</sup>

2) 鶴峰 金誠一은 다음과 같이 實記에 記錄하고 있다.

晩年에 陶山山麓에 精舍를 짓고 隱居하시면서 研索·存養에 힘쓰실 때 사람들은 그 造詣의 深淺을 엿볼 수 없고 다만 그 안에 쌓인것이 밖으로 나타나서 마음이 너그럽고 몸이 뚱뚱해지고 얼굴과 등에까지 넘쳐 흘러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實情을 볼 뿐이다. 骨體는 洞徹하여 가을 달 어름병 같고 氣象은 溫粹하여 精金美玉 같고 莊重함은 山嶽과 같고 精深함은 淵泉과 같고 단정하고 자상하고 한거로이 편안하고 두터울고 純眞하여 안과 밖이 한결 같고 物과 我가 간격이 없다. 바라보면 儼然하여 존경스러운 도법을 보여 주고 가까이 가면 따스하여 사랑스런 容德이 있어 비록 頑夫 狂子라도 先生의 門을 바라보면 驕氣가 저절로 사라진다.<sup>11)</sup>

3) 文峰 鄭惟一은 言行通述에서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先生께서 처음엔 自己를 감추기에 힘써 함부로 사람과 學問을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를 잘 알지 못하였고, 그 안다 하는 사람도 혹은 先生을 詩人으로 指目하거나 혹은 俗世를 떠난 方外人처럼 녀이어 그 배운 것이 바로 그 얻은 것이 참되어 모르는 사이에 날로 드러남이 있는 줄은 몰랐다. 晩年에 官職에서 물러나서 부러 나이 더욱 많아지고 德이 더욱 높아지고 玩心함이 더욱 高明해지고 行道가 더욱 親切해지고 自得한 것이 날로 더 깊어지고 從遊하는 이가 날로 더 불어난 다름에야 사람들은 비로소 東方에 참된 선비가 났다는 것을 알게되어 아는이나 모르는 이나 다 退溪先生이라고 부른다.<sup>12)</sup>

위 세분의 기록에 대하여 前高大 李相殷博士는 말하기를 弟子門人의 스

10) 退溪全書, 言行錄卷之二(成大·大東文化研究院刊) 및 李相殷「退溪의 學問과 思想」에서 再引用하다.

11) 前揭書와 같음

12) 前揭書와 같음

13) 李相殷「退溪의 學問과 思想」(退溪學研究, 1972년 退溪先生四百周忌紀念事業會刊)

승에 대한 行狀이나 傳記는 대개 誇張이 있기 쉬운 법이니 이 세분의 기록을 실령 그대로 다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文集에 실린 여러 角度的 글들로써 종합해 본다면 이들의 描寫가 결코 誇張단은 아니다. 그는 확실히 「盛德」을 갖춘 大賢이었던 것 같다. 그는 人間的으로 거의 완성에 가까우리만치 知, 情, 意의 生活에 있어서 모두 진실되고 純粹했으며 人間的 약점인 偏頗, 自私를 벗어나 中和, 中正의 경지에 가까웠다<sup>14)</sup>고 하였다. 또한 言行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先生雖偶吟一絕一句一字, 必精思更定, 不輕示入」 즉 선생께서는 우연히 읊조린 一絕一句라도 반드시 정밀하게 생각해 보시고 다시 고치시며 가볍게 남에게 내어 보이지 않으셨다. 이로 미루어 보아 그 作詩態度的 근엄함을 엿볼 수 있다. 退溪의 歌辭所作이 있다면 言行錄에는言及이 있었어야 한다. 退溪의 학문적 경혜, 학문적 태도 어느 측면에서 자질을 하더라도 「금보가」가 退溪作이 아닌 것이다.

끝으로 기록문헌의 문제이다. 이는 「금보가」뿐만 아니라 道德歌, 還山別曲, 牧童問答歌, 相杵歌, 樂貧歌, 勸義指路歌 등 7편의 작품과 그 작자의 기록이 하나도 信憑할 文獻이 아니요, 退溪 尊崇時代의 習氣의 產物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작품을 통한 작가의 추정, 작품 활동의 무대가 되었던 時代에 대한 면밀한 관찰, 문학사상의 추구 등, 많은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필자의 조사 연구로는 우리 詩歌의 退溪作은 「陶山이二曲」뿐이라고 본다.

#### IV. 맺는 말

생트 비보가 文學을 결정하는 三要因으로서 종족(race), 환경(milieu), 시기(moment)를 주장하였다. 退溪의 경우 그의 다음 말에 유의할 것이다.

즉, 문학적 산물은 한 사람의 전체 성격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개개의 작품을 즐길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작품만 단독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말을 험사리

14) 李商鑾 「문학연구의 방법」(1980년 探求堂 刊) p. 10

인용할 수 있다. 그런고로 문학 연구는 자연스럽게 인간 자체 즉 윤리 연구로 옮겨진다.<sup>14)</sup>

위대한 작품을 그보다 더 위대한 창조자에의 지표로 본 것이다. 작품을 작가를 알게 해주는 교량일 뿐이요, 비평은 작가와 직접 대면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당연히 윤리적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계속해 말하기를

한 위대한 작가의 출신 성분과 친척관계를 되도록 자세하게 확인하고, 그의 학업과 교육에 관하여서도 왜만큼 자세히 기술하고 난 다음, 다시 확정지어야 할 점은 그의 환경(milieu)이다. 그의 재능이 발전되고 형성되고 성숙하던 동시대인들의 사회 말이다. 소속집단, 교우관계, 활발한 사상의 교환 등이야말로 재능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기라는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 밖의 세계에의 참여를 갖게 하며, 성숙과 가치를 얻게 해주는 것이다.<sup>15)</sup>

썸트 뵈브가 여기서 밝히는 것은 그의 전기적 방법이 개인 위주가 아니라 사회적이라는 것이다. 우리 國文學의 재료 중에는 원전 비평과 失名氏의 작가 추정은 더 없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바로 「금보가」의 원전과 작가의 추정도 역사주의 비평 방법인 종족, 환경, 시기의 관찰에 주안해 보면 도저히 退溪作이 될 수 없는 여건의 작품이다.

필자는 위의 「금보가」 異本の 對比로서 李相寶교수의 자료와 徐元燮교수의 연구가 텍스트의 확정부터 잘못 된 것임을 알게 하였다. 다음은 歌中の 어휘가 당대작품에서 조사해 볼 때 退溪時代의 용어가 아님을 보이었다. 그 다음은 退溪의 詩歌觀에서 용납되는 작품이 아니다. 끝으로 退溪의 學問과 思想, 즉 그의 立德, 立功, 立言들을 살펴볼 때 결코 「금보가」 뿐만 아니라 여타의 歌辭도 退溪作이 아닌 것이다. 만약 所作이 있었다면 退溪門人들이 生存했을 그 당시 門人들에 의하여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言行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도 있다. 月川 趙穆이 退溪先生을 뵈고 詩를 가르쳐 줄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었다.

「身不行而口徒言, 寔餘之所愧也」(몸으로는 행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헛되이 떠드는 것은 바로 내가 부끄러워하는 바이다)

15) 前掲書와 같은

라고 하였다. 「陶山十二曲」을 手書本으로 남기고 版文에 「돌아다 보건데 스스로 한것이 자못 더그러졌으니 이같은 등한사가 혹이나 말썽을 일으키는 단서가 될는지 알 수 없고, 또 가히 腔調에 맞고 音節의 조화가 되는가 안되는가 믿지 못하기에 짐짓 一件을 써서 상자에 넣어두고 때때로 내어 스스로 살펴보고 또 다른 날 보는자의 去就를 기다릴 뿐이라고 하였다. 위의 人物評에서 본대로 退溪의 文字가 함부로 나온 것이라곤 없다.

지금까지 退溪歌辭를 연구한 사람들이 退溪의 學問, 人格을 격찬한 文字들을 인용해 附會하고서는 溫柔敦厚한 實相이 없는 作品을 退溪作으로 해석하였으니 작품의 감상조차 眞實性이 없게 되었다.